



## 새해의 리셋 버튼

### New Year reset button

엘리스 무어 (Elise Moore)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1년 12월 30일

새해는 나로 하여금 리셋 버튼 (reset button)을 생각해 한다. 때로 전자 장비는 가동을 멈춰버리거나 오류를 반복하기도 한다. 원인/결과를 탐색하는 대신, 간단한 리셋(reset)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장비를 껐다가 키기도 하고, 배터리를 뺐다고 다시 넣기도 한다. 그러면 기능상의 오류가 지워진다. 그리고 나면 장비는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유롭게 된다.

시간도 거의 걸리지 않는다. 잘못을 찾기 위한 과정을 힘들게 되짚어갈 필요도 없다. 첨단 기술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힘을 박탈함으로써 우리자신으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잘못을 부추기는 힘이 없다면, 오류는 지워지고 만다. 전력이 복구되면 장비는 새롭게 가동한다. 과거는 가고 없다. 미래는 자유롭다.

우리의 삶에 리셋 버튼을 쓸 수 있다면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슬픔, 두려움, 자존심이 우리의 믿음을 얼려 버리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되어 우리의 생각을 늦추고 급기야는 절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또는 누군가가 우리의 진전을 가로막고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것을 훼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부당함에 대한 반응은 감정에 불을 지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 간에, 사고의 리셋 버튼을 누르면 부정적인 감정의 힘을 박탈하고, 사고를 **하나님의 선(善)**에 대한 그 본래의 자연스러운 신뢰로 리셋한다.

나에게는, 영적 리셋 버튼이란 그리스도이고, 이는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오시어 위로하시며 우리의 사고와 삶으로부터 악을 제거하신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발견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에게 보내진 메시지라고 표현한다.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332 쪽 참조) 이 메시지가 사고를 리셋하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원래의 조화로운 관계를 복원시킨다.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끊임없이 오는 위안의 영적 메시지이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의식을 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든 되어있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온다. 그리스도는 단지, 이제까지 늘 오셨듯, 앞으로도 오셔서, 의심과 두려움을 꺼버리고, 영의 신성한 에너지를 켜서 우리를 재생시킨다.

내가 어렸을 적, 나는 밤에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고는 했다. 외로움, 자존심, 낙담, 상한 마음, 분노가 끓어올라 나를 삼키고는 했다. 나는 부당함 또는 오해로부터 헤어 날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둔 밤의 순간들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는 했다. 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 확신을 느끼고는 했다.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 될 것인가 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A.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A website.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복원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로 받아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면 부정적인 느낌들은 사라졌다. 나는 행복해졌고 새로운 가능성들로 가득한 느낌으로 날을 시작했다. 희망과 행복은 복원되었다. 때로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심적이고 감정적인 평형 상태는 다시 복원되었다.

마치 부드러운 리셋처럼, 그리스도는 감정으로부터 부정적인 성향을 지속시키는 힘을 빼앗는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에게 오는 영적 메시지는, 오직 좋고, 건강하고 전진적인 것에만 권능을 준다. 이것이 사고의 균형을 복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은혜를 가지고 전진하도록 능력을 준다.

지금은 새해이다. 새 날이다. 새 순간이다. 위안을 주는 그리스도는 항상 현존하여,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리셋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